

유비쿼터스 관련 특허정보 제공 사이트 등장

(<http://www.u-patent.or.kr>)

최근 인터넷혁명을 넘어 IT기술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상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회자되고 있는데, 특허청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교의 전문인력과 특허청 심사관들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로서 일상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컴퓨터 칩 및 송수신기를 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의 인터넷이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였다면 유비쿼터스는 초소형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물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patent.or.kr>)는 연구개발현장에서 필요한 국내외의 다양한 특허정보 및 특허원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RFID, 초소형배터리 등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에 관한 주요특허 기술을 분석한 특허분석정보와 주요특허기술로 선정된 특허원문자료를 홈페이지 상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다

양한 기술이 어느 국제특허분류(IPC)에 분포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연구개발자가 직접 특허정보를 검색할 경우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는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정부정책자료 및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하여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연구개발현장에서 필요한 특허정보자료를 문의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 할 수도 있다.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는 현재까지 공개된 전 세계의 유비쿼터스 관련 주요특허기술을 발굴·분석하여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R&D에 대한 중복투자 및 특허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수천 건에 이르는 한·미·일 세 나라의 유비쿼터스 관련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초에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분석 정보와 특허원문 자료를 홈페이지 상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특허청, 광통신 관련 기술 특허정보 홈페이지 운영

(www.ocpatent.org)

최근 기업·국책연구소·대학의 R&D책임자, 기술평가 전문가, 과기부·정통부 연구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특허심사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全光통신연구회'를 구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全光통신기술: 광신호처리 전과정이 광신호형태(Optical/Optical)인 새로운 통신방식으로, 현행의 일부 전기신호 포함방식 O/E/O (Optical/Electrical /Optical)에 비해 고속의 정보전송이 가능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구개발현장에서 필요한 국내외의 다양한 특허기술자료와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1만여건의 한·미·일 특허를 국가 및 기술별로 분석·비교한 특허정보지도(Patent Map)와 세계적인 핵심특허 125건 및 외국인의 국내등록특허 189건의 전문을 통하여 특허 기술내용을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광통신기술 관련 종사자들이 요청할 경우 연구회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에 출원된 3,600여건의 특허자료와 이를 기술주제별, 기업별 등 다양한 형태의 특허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S/W Tool도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의 특허자료 요청란을 통해 연구개발현장에서 수시로 요구되는 특허자료도 제공하며, 광통신 연구개발주체라면 누구든지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광통신 관련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도 있다.

연구회 운영을 맡고 있는 특허청에 따르면, 연구회는 국가 또는 기업이 R&D사업을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선은, 광통신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자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활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통신기술은 정보통신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는 인프라 기술로서, 특히 최근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인터넷 전송이 보편화 되는 대용량 光정보처리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호전송과 처리과정이 모두 광신호 형태로 이루지는 全光통신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제공 특허청

국내외의 다양한 특허기술 자료와 분석정보를 제공